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사에키 고지(佐伯弘次)

머리말	1. 명의 성립과 동아시아 해역세계
I. 14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의 동향	2. 동아시아 해역세계의 확대와 琉球의 대두
1. 14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원·고려·일본	IV. 15세기의 日朝관계와 동아시아
2. 日元무역의 동향	1. 왜구에서 통교자로
II. 14세기의 日麗관계	2. 중세 日朝관계의 특질과 사절 왕래
1. 전기왜구의 활동	3. 동아시아 속의 應永의 外寇(己亥東征)
2. 고려의 일본으로의 사절 파견과 일본측 대응	4. 日朝 통교체제의 정비와 對馬·三浦
III. 14세기 후반~15세기 초두의 동아시아 해역세계의 동향	5. 교역품과 環중국해 세계
	맺음말

머리말

본고에 부여된 주제는 <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日韓관계(왜구 구성 문제를 포함)>에 대해, 일본사의 입장에서 논하는 것이다. 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를 총체적으로 논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인 중국의 경우 14세기 후반에 몽고민족 국가인 원으로부터 한민족 국가인 명으로의 왕조교체가 있었고, 이 전후로 국제관계나 교역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주변의 모든 국가도 이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각각의 국가는 왕조의 교대나 정치적 통일, 군사적 통일로 향하여 중국만이 아니라 近隣의 국가와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일본을 관점으로 하여 동아시아 해역세계의 동향과 日韓관계(日麗관계·日

朝관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논하였다. 첫째 14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의 동향에 대하여 논한다. 14세기 제3·4반기까지의 동아시아 해역세계의 주요한 구성국은 원·고려·일본이었다. 이 삼자의 국제관계는 13세기 중후기 고려의 몽고로의 복속과 일본에 대한 몽고습래(元寇)를 큰 계기로 하여 원·고려와 일본은 긴장된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원은 한편으로는 대립하면서, 한편으로는 활발한 경제적·문화적 교류가 있었다.

두 번째, 14세기의 일본과 고려의 관계를 논한다. 그 주요 주제 중 하나가 이른바 전기왜구의 문제이다. 구성원의 문제도 포함한 전기왜구를 둘러싼 제문제에 대해 당시의 일본, 고려·조선, 중국 등 동아시아 제국에 있어서 왜구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왜구문제의 발단이 된 고려와 일본의 교섭을 고려 사신의 來日과 일본측의 대응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셋째, 명 성립 직후인 14세기 후반~15세기 초두의 동아시아 해역세계의 동향에 대해 명의 성립이 동아시아 해역세계에 미친 영향과 교역관계의 확대에 대하여 논한다.

넷째, 15세기의 일조관계와 동아시아 해역세계의 동향에 대하여 파악한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전기왜구가 통교자로 변질되는 모습과 중세 日朝관계의 시기구분과 특질에 대하여 서술한다. 나아가 日朝관계의 커다란 전환점인 應永의 外寇(己亥東征)에 대해서 동아시아와의 관련에서 파악하고, 그 후의 日朝관계의 추이를 통교체제의 정비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日朝간에 교역된 물품 중 동남아시아산 물품에 주목하여, 경제적인 관계가 동아시아라는 스케일을 초월하여 전개되고, 그것이 당시 日朝관계에도 크게 반영되고 있음을 서술한다.

I. 14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의 동향

1. 14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원·고려·일본

13세기 동아시아는 몽고(원)의 동향의 커다란 영향 아래 있었다. 몽고의 공격을 받은 고려는 수도를 개성에서 강화도로 옮기고 저항하였으나, 1259년에 몽고에 굴복하고 臣屬하게 되었다. 고려는 원의 책봉을 받고 그 번속국으로서 원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일본은 1274년과 81년에 두 차례에 걸친 원·고려의 공격을 받았으나 모두 결과적으로 격퇴하였다. 그 후에도 원의 일본 招諭는 계속되었지만 일본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299년 元使 一山一寧의 來日을 끝으로 일본 招諭는 없어졌으며, 일본과 원의 외교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과 원의 무역은 文永의 役 후에도 이루어졌고 특히 쿠빌라이 사후 활발해졌다.

원의 해외원정은 安南·참파·버마·타이 등 동남아시아에도 이르렀고, 대부분의 원정은 실패하였지만 많은 국가가 원에 입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부터 동남아시아·인도양을 경유하여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해상루트가 형성되었고 세계통상권이 형성되었다고 한다.¹⁾

14세기대 초기인 1305년, 몽고제국은 지금까지 격렬하게 항쟁해 온 大元우루스과와 反大元우루스과가 화해하고 동서화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²⁾ 그러나 이 시대의 원은 빈번하게 황제가 바뀌고 반란이나 天災가 일어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 제3대 황제인 武宗(1307년 즉위)부터 제10대인 寧宗(1332년 즉위)까지 약 25년간 8명의 황제가 연이어 즉위하고 있다. 당시 원의 정치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알 수 있다.

당시 중국사회에서는 불교의 일파인 백련교가 확산되어 그 신자를 중심으로 반란이 빈발하였다(홍건의 난). 이 난은 눈 깜짝할 사이에 퍼져 원의 치세를 위협하였다. 陳友諒·朱元璋·張士誠 등의 群雄이 활거하였고 원은 이들을 토벌할 수 없었다. 결국 1368년 朱元璋에 의해 원은 몽고 고원으로 물러나게 된다.

같은 무렵, 고려에서는 元 順帝의 황후를 낳은 奇氏가 세력을 떨쳤으나 이윽고 恭愍王에 의해 배제되었다.³⁾ 공민왕은 원으로부터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 개혁의 좌절 등으로 인하여 순조롭지는 않았다.

명 건국 후 고려는 명의 책봉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공민왕은 1374년에 암살되었고, 원(북원)과의 관계도 부활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영과 이성계가 대두했는데, 결국 이성계가 승리하여 1392년 조선을 건국한다.

일본에서는 1333년에 鎌倉幕府가 멸망하고 建武정권이 탄생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고, 긴 남북조 내란을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1336년에는 京都에 室町幕府가 창설되어 새로운 武家政治가 전개되었다. 1349년 室町幕府에서 내부항쟁이 일어나 내란으로

1) 西嶋定生, 1985 《日本歷史の國際環境》(東京大學出版會)

2) 杉山正明, 1997 <元> 《世界歷史大系 中國史3》(山川出版社)

3) 森平雅彦, 2008 <高麗>, 田中俊明編 《朝鮮の歷史》(昭和堂)

발전하였다(觀応의 擾亂). 南朝도 가세하여 삼파전으로 뒤엎힌 항쟁이 되어 남북조의 정치적 혼란은 정점에 달하였다. 九州에서는 足利直義의 양자인 足利直冬의 세력이 강성하였다.⁴⁾ 이 시대 동아시아와의 관계의 창구였던 九州의 정치정세는 중요하다.

南朝는 吉野에 거점을 두고 있었으나 정치·군사적으로는 북조=室町幕府 세력쪽이 南朝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九州는 예외로 後醍醐 천황의 皇子인 懷良親王이 征西將軍으로써 일부 武家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1361년 懷良親王은 大宰府로 들어가 北朝 세력을 압도하였다. 그 후 室町幕府의 九州探題가 된 今川了俊이 九州로 下向하여 南朝 세력을 역으로 압도하였고 懷良親王 등은 大宰府에서 筑後·肥後로 도망갔다. 1375년 今川了俊은 少貳冬資를 肥後國 水島에서 誘殺하여 유력 수호가인 少貳氏의 움직임을 억누르는데 성공했다. 今川了俊의 우위는 1392년 남북조 합일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 日元무역의 동향

1274년 文永의役に 의해 원은 일본의 적국이 되었다. 그러나 1277년에 일본상선이 원으로 가서 원으로부터 무역을 인정받고 있었듯이, 日元무역⁵⁾은 日宋무역을 계승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양국의 경제·문화면에서의 교류는 계속되었다. 이것은 원이 무역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국고 수입으로써 무역을 장려하였던 것에서도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1298년 4월에 五島에서 난파한 藤太郎入道忍惠의 ‘唐船’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日元무역선이었는데, 得宗(北條氏의 嫡流家)과 그 관계자의 짐을 싣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4세기가 되면 日元무역에 특징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寺社造營料唐船이라고 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종래 造營料國과 造營料所가 설정되어 造營이 행해졌던 大寺社の 건설비용을 변통해 내기 위해 日元무역의 이윤으로 충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무역에 의한 건설비용 조달은 이후의 日明무역과 日朝무역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의 선례 형태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寺社造營料唐船은 公許船이라고도 하며, 파견할 때 조정과 막부의 허가가 필요했다고 한다.⁶⁾ 오늘날 알려진 가장 오래된 寺社造營料唐船의 사례는 1306년 귀국한 相模·称名

4) 川添昭二, 1981 《中世九州の政治と文化》(文獻出版); 同 1994 《九州の中世社會》(海鳥社)

5) 森克己, 1975 《新訂日宋貿易の研究》(國書刊行會); 佐伯弘次, 2003 《日本の中世9 モンゴル襲來の衝擊》(中央公論新社); 榎本涉, 2007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 - 九~一四世紀 - 》(吉川弘文館)

寺造營料唐船이다. 称名寺는 金澤北條氏의 菩提寺이기도 한 律宗寺院이다. 이후 1315년 경 귀국한 鎌倉·極樂寺造營料唐船, 1323년경의 京都·東福寺造營料唐船, 1325년 파견된 鎌倉·建長寺造營料唐船(建長寺船), 1328년 혹은 1329년 파견된 鎌倉·關東大仏造營料唐船, 1333년 무렵의 攝津·住吉社造營料唐船, 1342년 파견된 京都·天龍寺造營料唐船(天龍寺船), 1367년에 계획되었던 療病院造營料唐船 등이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는 北條氏와 足利氏, 九條家 등 당시 권력자와 관계가 깊은 寺社가 많다. 鎌倉·室町 두 幕府가 보호한 禪宗寺院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律宗寺院도 많아 律僧과 日元 무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연구도 중요하다. 鎌倉時代는 鎌倉과 그 주변의 寺社가 대부분이며 남북조시대가 되면 京都의 寺社가 많아지는 것도 당연한 결과였다.

II. 14세기의 日麗관계

1. 전기왜구의 활동⁷⁾

전기왜구가 활동한 1350년 이전에도 왜구의 활동이 있었다. 13세기 전반에 작은 절정을 맞이한 왜구를 초기왜구라고 부른다. 14세기가 되면 원에 대한 왜구활동이 행해졌다. 이것은 元寇를 계기로 원측이 일본상인에 대하여 박해하였고 이에 대한 일본상인의 자위적인 폭력행위가 해적단의 발생·전개로 이어졌다는 설⁸⁾이 있으나, 근년의 연구⁹⁾에서는 이러한 일본인의 ‘왜구’ 행위는 원측의 현지 役人の 일본상인의 侵漁에 대한 폭동사건이며, 결코 조직적·계획적인 해적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1323년 6월에 왜가 會元의 漕船을 群山島에서 약탈하고, 楸子島를 습격하여 남녀노소를 잡아 간 사건¹⁰⁾이 발생했다. 漕船의 습격과 피로인의 약탈은 전기왜구의 특징이기도 하며, 전기왜구와 관련된 해적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庚寅 이래의 왜구’는 소수이지만 14세기 전반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고 싶다.

6) 森克己, 1975

7) 이하 서술은 佐伯弘次, <日本侵攻以後の麗日關係> 265~269 韓日文化交流基金·東北亞歷史財團編, 2009 <<モンゴルの高麗·日本侵攻と韓日關係>> (景仁文化社)를 근거로 하였다.

8) 森克己, 1975, 第3編

9) 榎本, 2007, 第2部 第1章

10) <<高麗史>> 世家, 忠肅王 10年(1323) 6月 丁亥, 同 戊子條

1350년 2월, 왜가 固城·竹林·巨濟를 습격하였다.¹¹⁾ 合浦千戶 崔禪 등이 이들과 싸워 300여급을 참획하였다. ‘왜구의 침략,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高麗史》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사건 이후 왜구의 활동이 급격히 활발해져 한반도를 빈번하게 습격하게 되었다. ‘倭賊祈禳法席’¹²⁾ ‘倭賊防禦使’¹³⁾라고 하는 어구가 《高麗史》에 종종 보이듯이 당초 왜구는 고려정부에서 ‘왜적’으로 부르고 있었던 듯 하다.

이러한 전기왜구에 관해서는 오랜 연구사¹⁴⁾가 있는데, 그 활동에 관해서는 몇 가지 시기구분이 되어 있다. 田中健夫氏는 크게 4시기로 구분하였다.¹⁵⁾ 제1기는 1350년 2월 이후의 초기 단계, 제2기는 공민왕 시대(1352년~74년)로 왜구활동이 본격화된 시기, 제3기는 왜구활동의 최전성기로 신우왕(1375년~88년)대에 극점에 달한다. 제4기는 왜구 세력의 감퇴기로, 고려 공양왕 시대부터 조선 太祖·定宗·太宗의 시기에 해당한다. 그 커다란 계기가 되었던 것이 1389년 2월 고려군에 의한 對馬공격이었다고 한다.

田村洋幸氏는 크게 초기·중기·종언기의 3기, 자세하게는 6기로 시기구분하고 있다.¹⁶⁾ 빈도가 적은 초기는 1350년~73년으로, 왜구에 대한 無策의 시기인 전반기(1350년~62년)와 적극적으로 倭人招致策을 세우고 점차 일본에 禁賊을 요청한 후반기(1364년~73년)로 나눈다. 최전성기인 중기는 1374년~89년이며, 왜구창궐기인 전반기(1374년~80년)와 점차 衰勢해 가는 후반기(1381년~89년)로 나눈다. 왜구종언기는 1390년~1418년으로, 소규모의 비조직적 왜구와 대선단 왜구가 혼재하는 전반기(1390년~1400년)와 소규모화되는 후반기(1401년~18년)로 나눈다.

양자의 시기구분은 상세한 연대에 대해서는 상이하지만, 1350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신우왕 시기에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고려말부터 조선초기에 쇠퇴한다고 하는 흐름은 공통된다.

일본에서의 기존의 통설¹⁷⁾은 왜구의 주요한 목적이 漕船·倉廩 등의 습격에 의한 식량의 약탈과 사람의 약탈로 여겨져 왔다. 그 근거지의 중심은 對馬·壹岐·松浦지방인 ‘三島’지역이며, 발생의 주요한 원인은 농업생산에 의해서는 島民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11) 《高麗史》 世家, 忠定王 2年 2月條.

12) 《高麗史》 世家, 忠定王 2年 2月 壬寅條.

13) 《高麗史》 世家, 恭愍王 12年 4月 己未條.

14) 前期倭寇에 관한 研究史는 본 보고서에 수록된 田中稔<日本における倭寇研究の學說史的檢討>를 참조하기 바란다.

15) 田中健夫, 1961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1~14

16) 田村洋幸, 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 第2章 (三和書房)

17) 田中健夫, 1959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田中, 1961 등.

는 ‘三島’의 경제적 사정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고려·조선측의 외교정책과 왜구 회유정책 등에 의해 왜구는 向化倭(投化倭)와 使送倭人·興利倭人 등으로 변질해 갔다고 여겨졌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지금까지의 왜구의 이해를 크게 변화시키는 연구가 잇달아 나왔다. 田中健夫氏¹⁸⁾는 대규모 집단 왜구의 실체를 검토하고, 대량의 인원·선박·馬匹의 해상 이동을 고려하면 왜구가 일본인만의 해적집단이라고 하는 생각은 부자연스러우며, 대규모 왜구집단은 일본과 고려·조선 양국 인민과의 연합에 의하여 성립했다고 하는 설을 제시하였다.

한편 高橋公明氏¹⁹⁾는 倭服을 입고 倭語를 말하며 각지를 이동하는 제주도의 해민을 검토하던 중에 왜구에 조선 국내의 상당한 해상세력이 관여하고 있었고, 그 기반부를 제주도의 海民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설을 제시하였다.

일본에 있어서 이 두 연구자의 새로운 견해는 왜구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浜中昇氏²⁰⁾는 이러한 田中健夫氏·高橋公明氏의 견해에 비판을 가하였다. 《高麗史》《高麗史節要》의 엄청난 왜구기사 중에 고려 백성이 사칭하여 왜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2건에 지나지 않으며, ‘倭人不過一二’라고 하는 1446년 李順蒙의 발언은 뒷받침할 사료가 없다는 점, 고려·조선의 禾尺·才인들이 도적행위를 저지른 기사는 많지만 그들과 왜인들과의 연합을 나타내는 사료가 없다는 점, 제주도 등의 海民을 해적집단으로 조직하려고 한 주체는 조선 국내에는 없었고, 한반도 남부의 海民이 고려말기 왜구로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차원에 그쳤다는 점, 왜인·일본인에 의한 대규모 왜구는 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한반도 남부의 海民이 개별적으로 참가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왜구를 구성한 것은 기본적으로 왜인 혹은 일본인이었다고 하였다.

村井章介氏²¹⁾는 禾尺·才인들이 해적을 위장했던 일은 있었으나 그것은 그들이 왜적과 연합하여 하나의 집단이 되어 왜구행위를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순몽의 말은 국가의 역할을 피하고 있는 자가 굉장히 많아 군대의 수가 부족해졌다는 문맥 아래 쓰여진 것이며 그대로 신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田中の 주장을 비판하였다.

18) 田中健夫, 1987 <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 《日本の社會史1》(岩波書店)

19) 高橋公明, 1987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濟州島を中心に－>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33 ; 同, <海域世界のなかの倭寇－朝鮮半島を中心に－> 勝俣鎮夫 編, 2000 《ものがたり日本列島に生きた人たち4 文書と記録下》(岩波書店)

20) 浜中昇, 1996 <高麗末期倭寇集團の民族構成－近年の倭寇研究に寄せて－> 《歴史學研究》685

21) 村井章介, <倭寇の他民族性をめぐって> 大隅和雄·村井章介 編, 1997 《中世後期における東アジアの國際關係》(山川出版社)

李領氏²²⁾는 경인년의 왜구는 足利直冬의 攻勢에 당황한 少貳賴尙이 對馬의 軍勢를 동원하여 병량미를 구하러 고려에 침공해 온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왜구는 해적으로 한정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악당이라고 하는 보다 넓은 사회적 계층이며, 대부분의 왜구집단은 공권력, 특히 南朝측과 강하게 결탁되어 있었던 점, 田中健夫氏의 禾尺·才人=倭寇論에 관해서는 대규모 禾尺·才인이 왜구와 연합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는 없다는 점, 高橋公明氏의 濟州島人=倭寇論에 관해서는 제주도인이 왜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료는 전무하다는 점, 倭寇=高麗人主体論을 말한 이순몽에 관해서는 왜구에 관한 기사가 傳聞에 근거한 것이며 이순몽의 인격·성향이 ‘狂妄’이라고 되어 있어 그 발언도 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 세 명의 견해는 田中氏·高橋氏의 새로운 견해를 정면에서 비판한 것으로 전기왜구의 주체를 일본인과 고려·조선인의 연합이나 고려·조선인이라고 하는 이해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舊說인 일본인 주체설이 재검토되고 있다.²³⁾ 단, ‘경인년의 왜구’는 少貳氏가 파견한 것이라고 하는 李領氏의 견해에 일본 학계는 부정적이다.²⁴⁾

고려·조선측의 사료에는 예를 들어 ‘三島倭寇爲我國患, 幾五十年’²⁵⁾과 같이 ‘三島’와 ‘三島倭寇’의 표현이 보인다. 조선측은 왜구의 주체는 이러한 일본의 ‘三島の 왜구’로 보고 있다. 이 ‘三島’는 전술한 것처럼 壹岐·對馬·松浦지방이라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²⁶⁾

왜구의 주체가 누구였는가를 규명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왜구측의 명확한 사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왜구에 관한 일본측 사료도 고려·조선측의 사료에 비하면 근소하다. 그러나 왜구에 관한 일본의 국내사료와 왜구에 관한 일본측 사료·발언을 고려·조선측이 기록한 것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1366년의 고려사절의 來日에 대하여 기록한 《太平記》²⁷⁾에는 왜구의 원인을 “40여년 간 本朝는 크게 혼란스러웠고 외국도 잠시도 조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本朝(일본)와 외국(원·고려)이 정치적 혼란상황에 있었던 점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는 남북조의 동란으로 산적·해적이 격증하여 “결국 이 도적들 일당이 수천 척의 배를 모아 元朝·고려의 해안가를 습격하고, 明州·福

22) 李領, 1999 《倭寇と日麗關係史》 第4章·第5章 (東京大學出版會)

23) 橋本雄·米谷均, 2008 <倭寇論のゆゑ> 桃木至朗 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24) 森茂曉, 2005 《南朝全史》 (講談社) ; 橋本·米谷, 2008

25) 《定宗實錄》 元年 5月 乙酉條.

26) 田中, 1961, 14~15

27) 日本古典文學大系, 1962 《太平記 三》 (岩波書店)에 의함.

州의 재물을 탈취하였다. 관청과 寺院을 불태우는 동안 元朝·三韓의 관리와 백성들은 이를 막기 힘들어서 포구 가까운 나라 수십 개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없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왜구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왜구에 관한 보기 드문 기술이다. 이 기술 후에, ‘賊船이 異國을 犯奪하는 것은 모두 四國 九州의 海賊들이 저지르는 일’이라고 하여 이 시기의 왜구의 주체를 ‘四國 九州의 海賊들’이라고 한 점도 주목된다.

이때의 사절이 가져온 征東行中書省牒²⁸⁾에는 왜구의 주체를 일본의 ‘島嶼居民’이라고 하였다. 1376년 高麗使 羅興儒의 귀국시에 室町幕府에서 보낸 서간 형식의 답서에도 왜구의 주체를 ‘西辺海道頑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西辺海道’를 西海道로 해석하면 九州의 사람들이 된다. 室町幕府측은 九州의 사람들을 왜구의 주체로 보고 있었다. 1395년 九州探題 今川了俊은 조선으로 사신을 보내 ‘蒙諭禁賊之事, 罄力於一岐・對馬已久矣, 海中寇賊, 以舟爲家, 從風便無着落之處, 今比于旧日, 賊輩十之八九減少焉’라고 말하고 있다.²⁹⁾ “고려로부터 왜구 금압의 요청을 받아 壹岐・對馬에 힘을 다 했는데, 바다의 왜적들은 배로 집을 삼고, 바람이 부는 대로 정착하여 일정한 곳이 없었으나, 지금은 옛날에 비하여 적의 무리들이 8할~9 할은 감소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왜구들의 거점을 壹岐・對馬로 보고 있다.

1402년 8월, 제1차 遣明使 일행이 明使를 따라서 일본으로 귀국했다. 일행이 兵庫에도착하여 京都로 들어가기 전에 足利義滿은 薩摩守護 島津伊久에게 왜구 금압을 명하였다.³⁰⁾ 足利義滿의 재빠른 왜구대책이 주목되는데, 이 사료에 ‘鎮西辺賊船等, 連々令渡唐, 以便宜在所及狼藉’이라고 하였다. 연이어 唐에 건너가 난폭한 짓을 한 ‘鎮西辺賊船’은 다름 아닌 왜구이다. 室町幕府는 당시 왜구를 九州지방의 해적선으로 보고 있다.

1404년 明 永樂帝가 일본국왕 足利義滿에게 준 勅書에는 義滿이 ‘禁止壹岐・對馬・諸島之人, 不爲海浜之害’한 것을 칭찬하고 있다.³¹⁾ 이 영락제 칙서에는 중국을 습격한 왜구를 ‘壹岐・對馬・諸島之人’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1406년의 칙서에서도 영락제는 왜구를 ‘對馬・壹岐等遠島海寇’로 표현하고 있다.³²⁾ 동 시기의 《명실록》에서도 ‘對馬・壹岐暨諸小島, 有盜潛伏, 時出寇掠’으로 기록하고 있다.³³⁾ 이러한 표현에서 명측도 왜구의 근거

28) 中村榮孝,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 上》 第6章 (吉川弘文館)

29) 《太祖實錄》 4年 7月 辛丑條.

30) <旧記雜錄> 前編23, 応永 9年 8月 16日 足利義滿御判御教書(《鹿兒島縣史料 旧記雜錄前編》 2所收).

31) 《善隣國寶記》 卷中, 永樂 2年 12月 初日 永樂帝勅書(田中健夫 編, 1995 《善隣國寶記·新訂續善隣國寶記》 (集英社))

32) 《善隣國寶記》 卷中, 永樂 4年 正月 16日 永樂帝勅書(同前).

지를 壹岐·對馬·諸島와 北部九州의 島嶼部로 인식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것은 명과 통교하며 明帝에게 왜구의 수령을 자주 헌상한 일본국왕 足利義滿측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1434년 明使가 來日하였을 때, 明使는 ‘賊船’의 정지와 ‘賊船’에 포획된 ‘唐人’ 즉 被虜明人の 송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將軍 足利義教의 브레인이었던 醍醐寺의 승려 滿濟는 “賊船의 일은 壹岐·對馬의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³⁴⁾ 왜구의 주체는 壹岐·對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숙주의 《海東諸國紀》³⁵⁾에는 200인에 가까운 일본인 통교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는 ‘安芸州海賊大將藤原朝臣村上備中守國重’ ‘伊予州鎌田關海賊大將源貞義’ ‘出雲州留關海賊大將藤原朝臣義忠’ ‘豊前州叢島海賊大將玉野井藤原朝臣邦吉’ 등등 ‘海賊大將’을 자칭하는 영주의 이름이 산견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僞使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³⁶⁾ 기사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한편 ‘海賊首’ ‘賊首’라고 기록된 인물도 산견된다. 이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1〉 《海東諸國紀》에 나타난 海賊首

人名	島名	浦名	記事	備考
護軍多羅而羅	對馬	仁位郡	賊首	平松家繼
中樞平茂續	對馬	土寄	賊首早田의 子	
護軍阿馬豆	對馬	佐賀	海賊首宮內四郎의 子	원래 壹岐 本居浦에 산다
護軍井可文愁戒	對馬	加志	父賊首井大郎	
護軍皮古仇羅	對馬	黑瀬	海賊首護軍藤茂家의 子	
護軍三甫郎大郎	壹岐	本居	賊首護軍藤永의 繼子	

《海東諸國紀》가 성립한 1471년경은 왜구가 종식된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賊首의 아들로 기록된 것이 일반적이다. 그들은 對馬와 壹岐 바다의 領主들이다. 그 근거지는 對馬에서는 淺茅灣 연안의 포구들과 宗氏의 守護所 소재지로 日朝關係의 거점(佐賀)에 있으며, 壹岐에서는 本居浦에 한정된다. 이러한 포구들이 왜구를 조직하는 영주들의 거

33) 《明實錄》 永樂 4年 正月 己酉(18日)條.

34) 《滿濟准后日記》 永享 6年 6月 17日條.

35) 田中健夫譯注, 1991 《海東諸國紀》(岩波文庫, 岩波書店)에 의함.

36) 長節子, 2002a <朝鮮前期朝日關係의 虛像と實像 - 世祖王代瑞祥祝賀使を中心として - > 《年報朝鮮學》 8

점이며 그 수하에 있는 왜구들의 거점과도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전기왜구의 주체는 壹岐·對馬·松浦를 중심으로 하는 北部九州 島嶼部の 海民과 領主들이며, 특히 壹岐·對馬의 海民·領主가 중심이라는 것이 일본·고려·조선·명 등 동아시아 각국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이것이 단순한 국가레벨의 표면적인 인식이 아니었다는 것은 실제로 왜구 금압과 피로인 송환에 진력한 倣川了俊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던 점에서 알 수 있다.

중국에서 활동했던 전기왜구에 관해서는 元 시대에 대한 사료는 부족하지만 1358년~63년경 왜구는 매년 연해의 군현을 습격하고 있었다.³⁷⁾ 元末의 왜구에 대해서는 方國珍 등 群雄의 반란과 관련지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浙江 沿海部를 거점으로 한 方國珍은 그 수하에 舟山列島 등의 海民이 있었고, 그들이 ‘島夷’ 즉 왜구와 결탁하여 해적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 方國珍과 張士誠의 사망 후 그 수하인 ‘諸豪’는 망명하여 ‘島夷’와 손을 잡고 중국 연해에 入寇한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³⁸⁾ 일본의 왜구와 중국 연안부의 해상세력과 海民이 직접 결합할 수 있었는지, 혹은 어떠한 매개가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왜구와 중국 연해부의 해민의 연합에 의한 중국 연해로의 入寇와 고려로의 습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금후 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구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활동했으며, 동아시아적 스케일에서 검토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2. 고려의 일본으로의 사절 파견과 일본측 대응³⁹⁾

가. 金龍·金逸의 來日(1366년)

倭寇의 활발화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한 고려는 왜구 금압을 요청하는 사자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1366년 9월, 고려의 사자 金龍 등이 出雲에 도착하였다.⁴⁰⁾ 金有成的의 遣使이

37) 榎本涉, 2007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一四世紀—》(吉川弘文館) 177~180

38) 奥崎裕司, 1990 <方國珍の亂と倭寇>, 明代史研究會編 《山根幸夫教授退休記念明代史論叢 上》(汲古書院); 藤田明良, 1997 <<蘭秀山の亂>と東アジアの海域世界> 《歴史學研究》 698; 熊遠報, 1997 <倭寇と明代の<海禁>—中國學界の視点から> 《中世後期における東アジアの國際關係》; 檀上寛, <方國珍海上勢力と元末明初の浙江沿海地域社會> 京都女子大學東洋史研究室 編, 2003 《東アジア海洋域圏の史的研究》(京都女子大學)

39) 이하의 서술은 佐伯弘次, 2009, 270~274를 근거로 했다.

40) 金龍·金逸의 來日에 관해서는 青山公亮, 1955 《日麗交渉史の研究》 第8章(明治大學); 中村榮孝, <<太平記>に見える高麗人の來朝> 同,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 上》 第6章(吉川弘文館);

래 실제로 70여 년만의 遣使이다. 일행은 出雲에서 方物을 빼앗겼으나 다음해 2월에 上京하여 天龍寺에서 숙박하였다. 같은 절에서의 숙박은 室町幕府의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그들보다 약간 늦게 고려에서 金逸이 별도로 도착하여 같은 天龍寺에 숙박하였다.

당초 京都에서는 ‘蒙古 및 高麗使가 牒狀을 가지고 來朝하였다’ 는 소문이 퍼졌는데, 이후 고려 사자임이 판명되었다. 金龍이 지참한 ‘牒狀’(외교문서)은 室町幕府를 거쳐 조정에 전달되었다. 蒙古襲來시의 대응과 같았다. 이 일련의 고려의 외교문서는 현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元의 征東行中書省(고려왕이 長官)이 일본국에 대하여 至正 10년(1350) 이후 일본의 賊船 다수가 고려를 습격하고, 관청을 불태우며, 민중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海島에 대하여 엄중하게 금압을 가하도록 의뢰한 것이었다. 게다가 《高麗史》 世家 恭愍王 15년 11월 壬申條에 의하면 늦게 파견된 金逸의 파견 목적도 ‘일본에 가서 해적 금지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조정에서 이 ‘첩장’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였을 때 室町幕府는 高麗使 일행을 후하게 환대하고 奈良·大仏殿을 관광시키기도 하였다. 같은해 5월에는 조정에서 고려로 ‘返牒’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室町幕府가 ‘返牒’을 작성하고, 다양한 선물을 사절에게 주었으며, 天龍寺 승려를 使者로 파견하여 일행을 송환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외교를 室町幕府가 관할하는 선례가 만들어졌다. 왜구 금압 요구를 위한 고려의 사자 파견은 일본에서는 朝廷에서 室町幕府로 외교권이 이동하는 중요한 전환을 초래했던 것이다.

나. 羅興儒의 來日(1375년)

1375년 2월, 고려는 羅興儒를 通信使로 일본에 파견하였다.⁴¹⁾ 《高麗史》 列傳에 의하면 나흥유가 일본에 도착하자 일본측은 흥유를 ‘첩자’로 의심하여 체포하였다. 《高麗史》 ‘鄭夢周傳’에 의할 때 정몽주가 구금된 곳은 博多이며, 博多의 主將(九州探題인가)이 구금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출신 승려 良柔가 나흥유를 보고 면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岡本眞, <外交文書よりみた十四世紀後期高麗の對日本交渉>(佐藤信・藤田覺 編, 2007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山川出版社)) 등 참조.

41) 羅興儒 이후의 遣使에 대해서는 주로 青山, 1955 對外關係史編集委員會 編, 1999 《對外關係史總合年表》(吉川弘文館)을 참조했다.

高麗使者羅興儒以下，同進物等，被召上候由事，去月六日御教書并同月十九日施行案如此，早
(下之)
 任被仰□□旨，用意人夫・伝馬・雜事以下，致警固，可致勤過之由候也，仍執達如件

永和元年十二月九日
 赤穂郡寺社本所地頭御家人御中⁴²⁾

(宇野祐頼)
 備前守判

이 문서는 1375년 12월 9일 播磨守護 赤松義村의 守護代 宇野祐頼가 播磨國 赤穂郡의 寺社本所地頭 御家人에 대하여 高麗使者 羅興儒 일행과 그 進物을 京都에서 몰수했기 때문에 人夫・伝馬・雜事を 준비하여 일행을 경호하고, 무사히 통과시키도록 명한 것이다. ‘去月六日御教書’라는 것은 11월 6일자 室町幕府의 문서이며, ‘同月十九日施行案’은 11월 19일자 播磨守護 赤松義村의 施行狀案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1375년 11월~12월경, 羅興儒 일행은 京都를 향하여 播磨國 부근을 통과하였다. 이러한 室町幕府-守護의 고려사자 호송명령은 연도의 각국·각도에 보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東寺領의 莊園이었던 播磨國 矢野莊은 이때 ‘高麗人警固并人夫催促郡使兩度引出物・雜事’로 400文, ‘同人夫并警固糧物’로 150文을 지출하였다.⁴³⁾ 이러한 외국사절 호송을 위한 인부・傳馬 등의 부담은 沿道の 장원 영주나 무사에게 전가되었던 것이다.

그 후 다음해 76년 5월 3일, 近衛道嗣 앞으로 公家の 한 사람이 왜구금지를 요구하는 ‘高麗國牒狀’을 지참하였다.⁴⁴⁾ 道嗣는 국가의 중대사이므로 殿上定을 행하도록 제의하였다. 그 후 상세한 상황은 명확하지 않으나, 羅興儒 일행은 1376년 10월에 귀국하였다. 이때 室町幕府는 승려 良柔를 사자로 고려에 파견하였다. 이때, 禪僧 周佐가 기록한 私信 형식의 외교문서가 《高麗史》 신우전에 인용되어 있다. 여기에는 “우리 西海道 九州는 난신들이 활거하고 年貢을 바치지 않은 것이 20년 이상이 된다. 西海道の 우매한 백성들이 적의 허점을 노리고 入寇하였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 장수를 파견하여 왜구들을 토벌하고 그 땅에 깊이 들어가서 서로 싸우고 있다. 바라건대 九州를 회복하면 하늘에 맹세코 海寇를 금지하겠다”는 일본측의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왜구의 근거지인 九州의 지배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구 금압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室町幕府의 사정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42) 東寺百合文書よ函60, (相生市史編纂專門委員會 編, 《相生市史 第8卷上》 380 <人夫役文書案> 6) 守護代宇野祐頼遵行狀案, 380~381). 또 본서의 해석문은 ‘羅興儒’이라고 했으나, ‘羅興儒’로 고쳤다.

43) 《相生市史 第8卷 上》 383 <學衆方年貢等算用狀并未進年貢等算用狀> 383~389

44) 《愚管記》 永和 2年 5月 3日條

다. 安吉常의 來日(1377년)

이해 8월에 일본국은 승려 信弘을 고려에 파견하여 왜구 금압이 쉽지 않은 사정을 전하였다. 信弘은 室町幕府가 아니라 九州探題 今川了俊이 파견한 使僧이었음이 밝혀졌다.⁴⁵⁾ 了俊은 다음해 6월 信弘에게 군사 69인을 거느리고 왜적을 포획하도록 하였다. 7월에 信弘은 왜구와 싸워 배 1척을 포획하고, 피로 부녀 20여 명을 구출하였다. 11월에 다시 왜적과 싸웠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귀국했다.

라. 鄭夢周의 來日(1377년)

1377년 6월, 고려는 安吉常(吉祥이라고도 함)을 일본에 파견하여 禁賊을 요청했다. 《高麗史》에는 이 때의 國書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 安吉常은 일본에서 병사했다고 한다. 東寺領 播磨國 矢野莊의 1377년 年貢算用狀에는 ‘高麗人上洛人夫催促使雜事’ 125文, ‘同人夫六人·馬二匹糧物’과 ‘同下向時送夫催促使雜事’ 125文이 기록되어 있다.⁴⁶⁾ 나훈유 때와 마찬가지로 播磨國 沿道の 莊園에서 人夫·傳馬 등이 賦課되었던 것이다. 이 때는 고려사절이 상경할 때와 하향할 때 모두 人夫·傳馬의 재촉이 있었고, 이에 노력한 것, 이러한 재촉을 播磨守護代가 催促使를 파견했고, 催促使의 현지 방문시에도 矢野莊으로부터 지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과는 播磨 일국만이 아니라 고려사신이 통과하는 沿道諸國에는 동일하게 시행되었다고 생각된다.

1377년 9월, 고려는 정몽주를 일본에 파견하여 禁賊을 요청했다. 《高麗史》 정몽주전에 의하면 정몽주는 博多에서 ‘古今交隣의 利害’를 ‘極陳’하여 主將(今川了俊?)을 敬服시켰다고 한다. 정몽주는 일본에서 지은 ‘洪武丁巳奉使日本作十一首’를 남기고 있다.⁴⁷⁾ 정몽주는 다음해 78년 7월 일본에서 귀국했다. 九州探題 今川了俊은 周孟仁을 使者로 동행시켰고, 尹明 등 수백인의 피로인을 송환했으며, ‘三島’의 왜구 금압을 약속했다.

45) 靑山, 1955

46) 赤松俊秀 編, 《教王護國寺文書》 第2卷, 577号 <播磨國矢野莊學衆方年貢等算用狀>(平樂寺書店, 1961).

47) <圃隱先生文集> 卷一 (竹內理三·川添昭二 編, 1984 《大宰府·太宰府天滿宮史料》 卷十二, 349~351 (太宰府天滿宮)). 1990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5 (景仁文化社)와 1993 《韓國歷代文集叢書》 21 (景仁文化社)에도 收錄.

78년 6월 2일에 東寺領 播磨國 矢野莊에 守護代로부터 ‘高麗人送夫催促使雜事三ヶ度分’ 230文과 ‘同人夫食二人半・馬一匹’이 부과된⁴⁸⁾ 것은 정몽주가 京都에서 귀국하는 도중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安吉常의 사절 파견 이래 室町幕府보다도 오히려 博多의 九州探題와의 교섭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고, 사절의 송환도 九州探題가 시행하고 있다.

《高麗史》 鄭夢周傳에 의하면 왜구가 고려 良家の 자제를 노예로 삼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 피로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귀국시키려고 廷臣들에게서 각출한 자금을 기초로 원의 被虜人이었던 尹明을 博多에 파견하여 피로인 백여 명의 송환에 성공했다고 한다. 피로인 송환이 사절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⁴⁹⁾

마. 李子庸·韓國柱의 來日(1378년)

1378년 10월, 고려는 李子庸·韓國柱 두 사람을 일본에 파견하여 禁賊을 요청하고, 今川了俊에게 金銀酒器 등을 선물했다. 다음해 79년 5월 韓國柱는 귀국하였다. 大內義弘은 朴居士에게 군사 186인을 거느리고 韓國柱에게 동행시켰다. 같은 해 7월에는 李子庸이 귀국했다. 今川了俊은 피로인 230여구를 돌려보내고 槍 등을 헌상했다. 고려의 교섭선은 점점 더 西國의 大名들에게 이동했다.

바. 尹思忠의 來日(1379년)

1379년 윤5월, 고려는 尹思忠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일본에서의 활동과 귀국한 해 등 자세한 것은 명확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고려의 왜구 금압 요청에 응한 것은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던 室町幕府가 아니라 今川了俊과 大內義弘이라는 西國의 유력 大名들이었다. 室町幕府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서 1381년 8월 6일, 大隅守護 今川了俊에 대하여 “당국의 악당들이 고려에 건너가 狼藉을 일삼고 있는데 엄중히 제지해야 한다”고 大隅

48) 《相生市史 第八卷上》 403 <學衆方年貢等算用狀> 407~411

49) 일본에서의 被虜人 送還에 관해서는 石原道博, 1956 <倭寇と朝鮮人俘虜の送還問題>(一)(二) 《朝鮮學報》 9·10 ; 關周一, 2002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第1章 (吉川弘文館) 등을 참조.

國의 왜구 금압을 명하고 있다.⁵⁰⁾ 고려의 왜구 금압 요구에 막부로서도 응하고자 했던 것이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금압을 시행한 것은 守護大名과 지역의 영주들이었다. 今川了俊은 많은 피로인을 고려·조선으로 송환하고, 그 대가로 대장경을 요구하기도 하였다.⁵¹⁾ 고려사신이 금전을 가지고 피로인의 구입·송환을 의도했던 일에서 상징되듯이 피로인의 송환은 무역상의 우대나 무역 그 자체의 확대라고 하는 이점이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고려의 빈번한 외교노력은 西國의 유력 大名을 주목함에 따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1380년대 후반이 되면 왜구는 감소하는 경향이 된다.

또 하나 이 시기에 주목되는 것은 ‘三島’의 하나인 對馬島主 宗氏의 동향이다. 《高麗史》에 의하면 1368년 7월, 對馬島 萬戶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고 토산물을 헌상하였다. 고려는 윤9월에 講究使를 對馬에 파견, 11월에는 대마도 萬戶 崇宗慶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來朝했고, 고려는 宗慶에게 쌀 천 석을 주었다. 당시의 對馬宗氏는 本宗家(嫡流家)와 庶家인 仁位宗氏가 島主權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었는데, 崇宗慶(宗宗慶)은 本宗家の 宗經茂이며 앞의 대마도 萬戶와도 동일인일 것이다. 대마도 내뿐만 아니라 북부 九州에서도 少貳氏의 유력 家臣으로 활동하고 있던 宗經茂는 이 무렵부터 고려에 사신을 보내 고려와 통교관계를 맺으려고 하였다. 필시 宗氏는 對馬島 근해에 있는 高麗使의 호송에도 관여했으리라 생각된다.

고려에 대한 이와 같은 사신 파견과 고려에서의 쌀 지급은 다음 시대인 조선시대에 있어서 宗氏와 조선의 관계와 공통되는 것이며, 對馬 宗氏를 핵으로 15세기 전반에 안정되는 중세 일조관계는 14세기 후반인 고려 말기부터 준비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Ⅲ. 14세기 후반~15세기 초두의 동아시아 해역세계의 동향

1. 명의 성립과 동아시아 해역세계

1368년 중국에서는 朱元璋(洪武帝)에 의해 명이 건국되고, 元 황제는 몽고고원으로 철수하였다. 홍무제는 즉위하자 주변 국가에 使者를 파견하여 명에 대한 조공을 요구하였다. 주변 나라들의 대다수는 여기에 응하여 조공사절을 명에 파견하였다. 홍무제는 唐代

50) 禰寢文書, 永德 元年 8月 6日 室町幕府御教書案, 《南北朝遺文九州編》 5卷 5673号

51) 川添昭二, 1996 《對外關係の史的展開》 第5章 (文獻出版)

에 완성되었다는 중국을 중주국으로 하는 국제적 화이질서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⁵²⁾

고려는 1369년에 명의 책봉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친명파와 친원파의 대립이 계속되었으며, 결국 친명파인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1392년에 조선을 건국했다.

일본에서는 명이 九州 南朝의 중심인물인 征西將軍 懷良親王을 일본국왕 良懷로 간주하여 교섭상대로 하였다.⁵³⁾ 처음에 良懷는 明使를 배어 죽이는 등 日明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1372년에 明使가 大統曆을 가지고 良懷를 일본국왕에 책봉하기 위하여 來日했다. 그러나 九州探題 今川了俊 때문에 良懷는 大宰府로 쫓겨가고 明使는 良懷를 책봉할 수 없었다. 이 사절은 今川了俊에 의해 博多에서 京都의 室町幕府로 보내졌고, 일본의 남북조 내란을 알게 되어 명 정부에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명은 비로소 일본이 한창 남북조 내란 중임을 인식한다. 그 후에도 日明 교섭은 계속되었지만 14세기에는 명 국내의 사건도 뒤엎혀 명과 일본의 책봉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일본은 명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세계의 이단이었으며, 日明관계가 궤도에 오른 것은 1401년 足利義滿의 遣使를 기다려야 했다.

명의 국제질서 회복정책은 그 나라의 국왕이 명에 파견한 사절에 대해서만 무역을 인정하였고, 조공에 대해서는 회사를 시행하는 정책이었다. 이 때문에 명과 주변 국가와의 무역은 조공무역밖에 인정되지 않았다. 일본이 나중에 조공무역을 시행하게 된 것은 이러한 국제적인 배경이 있었다. 주변 제국이 조공할 때에는 表文(국왕의 외교문서)과 명이 수여한 勘合의 소지가 의무였다. 반대로 조공체제에 어긋나지 않으면 상인들이 조공선을 타고 들어와 중국에서 무역하는 일도 가능하였다.

또 홍무제는 1371년 이후 元末에 지역정권을 만든 張士誠과 方國珍의 잔당들이 연해의 海島에 거처하면서 연해 주민이나 왜구들과 결합하여 재기를 도모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下海의 禁’을 실시하였다.⁵⁴⁾ 이것은 중국 인민의 해외도항과 해상무역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海禁政策으로 부르고 있다. 왜구대책이기도 한 이 海禁令은 민간 무역을 금지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발표되었다. 제도적으로는 16세기 후반에 동남아시아 방면에 대한 해금이 완화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52) 西嶋, 1985

53) 초기의 日明關係에 대해서는 田中健夫, 1975 《中世對外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鄭樸生, 1985 《明·日關係史の研究》(雄山閣); 村井章介, 1988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校倉書房); 佐久間重男, 1992 《日明關係史の研究》(吉川弘文館) 등을 참조.

54) 佐久間, 1992

명의 건국 후에도 왜구는 중국을 습격하였다. 명은 왜구에 대한 海防體制의 강화를 피하여⁵⁵⁾ 연안 지방에 衛所를 늘리거나 왜구 격퇴용 선박을 열심히 건조하였다. 게다가 方國珍·張士誠 등의 잔당이 왜구와 결탁하여 寇를 이루었기 때문에 浙江·福建의 연해민이 바다로 들어가 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하거나, 島嶼部 주민의 이주정책도 실시하였다. 해금령의 연장에 있는 왜구대책이다.

1401년 足利義滿이 명에 조공함으로써 日明관계는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⁵⁶⁾ 義滿은 明帝로부터 일본국왕에 책봉되어 동아시아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제2차 遣明船은 永樂勸合을 초래하였고, 감합을 사용한 감합무역이 시작되었다. 1401년 제1차 견명선부터 1410년 제8차 견명선까지는 거의 足利義滿의 시대에 해당하는데, 빈번한 교류가 있었다. 견명사가 명에 파견되고, 그 귀국시에 明使가 동행하고, 明使가 귀국할 때 다음 견명사가 파견되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義滿의 아들인 義持는 조공을 거절했기 때문에 日明관계가 단절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 일본은 永樂帝의 노여움을 사서 日明관계는 긴장상태가 된다. 1433년 제9차 견명선이 파견되면서 日明관계는 부활했지만, 그 후 일명관계는 十年一貢이 되었고, 결국 細川氏·大内氏 등의 유력 大名으로 파견의 주체가 옮겨갔으며, 1547년 제19차 견명선으로 감합무역은 종지부를 찍었다.

2. 동아시아 해역세계의 확대와 琉球의 대두

명대에 들어서 조공무역이 중국과 정식으로 교류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자 주변 각국은 속속 명에 조공하였다. 고려·琉球 등 동아시아 각국 이외에도 많은 동남아시아 제국이 조공하였다. 조공무역에는 朝貢-回賜라고 하는 국가 간의 의례적인 贈答뿐만 아니라 공무역과 상인들에 의한 사무역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중국에는 동아시아에서부터 동남아시아의 물자가 집적되었다. 그러나 宋元시대와 같이 중국인 海商이 각국으로 진출하여 무역하는 것은 해금령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해외무역이 가능하지 않았다.

한편, 발전하는 경제와 그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해금정책의 모순은 새로운 해상세력의 등장을 낳았다. 琉球의 대두이다. 14세기 후반 琉球는 北山(山北)·中山·南山(山南)의

55) 奥崎, 1990 ; 佐久間 1992

56) 日明貿易의 추이에 대해서는 田中, 1961 ; 小葉田淳, 1968 《中世日支通交貿易史の研究》(刀江書院)(初版은 1941年) 등을 참조.

세 왕조가 항쟁하는 삼시대였다. 세 왕조는 각기 명에 조공하거나 高麗·朝鮮과 통교하였다. 삼 중 浦添에서 首里로 거점을 옮긴 中山(尙氏)이 대두하였고, 1416년에 北山을, 1429년에 南山을 멸망시키고 琉球를 통일했다.⁵⁷⁾

琉球는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관계로 명을 종주국으로 받들었는데, 한편으로 일본 및 조선과도 관계를 맺었다. 《歷代寶案》에 의하면 팔렘방·자바·말라카·파타니·安南·순다 등 동남아시아 제국과의 교역도 활발히 이루어졌다.⁵⁸⁾ 琉球의 무역은 중계무역이며, 琉球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것도 명의 해금정책의 영향이다.

1380년대 이후 일본에는 남만인(동남아시아인)이 來航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전인 1374년에는 天竺의 고승이 京都에 왔다. 日明貿易家 楠葉西忍의 아버지이다. 천축에 대해서는 인도·아라비아·자바·琉球 등 다양한 해석이 있다.⁵⁹⁾ 15세기 초엽 이후 琉球船의 일본 來航이 활발해지고, 琉球국왕과 일본국왕(將軍足利氏) 사이에 빈번한 교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주고받은 외교문서에서 보면 일본국왕과 琉球국왕의 사이에는 느슨한 상하관계가 있었다.⁶⁰⁾ 15세기 중기에 가까워지면 琉球船의 일본도항은 감소하고 오히려 博多상인과 堺상인 등 일본상인들의 琉球 渡海가 빈번해진다. 琉球와 조선 사이를 왕래한 사절도 대부분 博多상인이 맡게 되며, 博多상인이 僞琉球國王使를 파견하는 일도 많았다.⁶¹⁾

이상과 같은 琉球의 교역활동과 동남아시아 제국의 교역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동아시아 해역세계는 확대되었다. 이미 동아시아라고 하는 범주에서는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중세 후기(14~16세기)의 지역 모델로서 환일본해 지역과 환중국해 지역이라는 두 개의 지역개념이 제시되고 있다.⁶²⁾ 환중국해 지역에서 지역교류의 주체는 琉球人이며, 동지나해·남지나해상에 장대한 교역루트를 구축했다고 여겨진다. 환일본해 지역은 환중국해 지역에 포섭되는 지역으로 생각되는데, 이 시대의 동아시아 교류를 상정한 지역개념으

57) 高良倉吉, 1980 《琉球の時代》(筑摩書房); 琉球新報社 編, 1991 《新琉球史 古琉球編》(琉球新報社); 高良倉吉, 1993 《琉球王國》(岩波書店) 등.

58) 秋山謙藏, 《日支交渉史研究》(岩波書店); 小葉田淳, 1968 《中世南島通交貿易史の研究》(刀江書院)(初版은 1939年); 東恩納寛惇, 1979 《東恩納寛惇全集三 黎明期の海外交通史》(第一書房)(初版은 1941年); 高良, 1980 등.

59) 田中健夫, 1959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東京大學出版會) 117~120

60) 佐伯弘次, 1994 <室町前期の日琉關係と外交文書> 《九州史學》 111

61) 橋本雄, 2005 《中世日本の國際關係》(吉川弘文館)

62) 村井章介, 1988, 第一部Ⅲ

로서는 환중국해 지역(세계)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실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중국을 중심으로 보면 명의 화이질서가 동아시아 전체에서 관철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주변국들의 입장에서 볼 경우 반드시 화이질서가 관철되고 있지 않은 것은 日明관계에 잘 나타나고 있다. 주변국끼리의 관계도 복잡하며, 일본과 琉球처럼 상하관계가 설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세계를 가령 大中華세계로 규정한다면, 주변국들도 자국과 주변지역 사이에 소중화세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 세계를 대중화와 소중화 세계 및 세계관이 뒤얽히고, 당해국끼리의 관계와 상대국에 대한 인식도 결코 쌍방향은 아니며, 더욱이 경제적 교류가 大中華의 틀을 넘어서서 밀접했던 지역이라고 생각해 두고 싶다.⁶³⁾

IV. 15세기의 日朝관계와 동아시아

1. 왜구에서 통교자로

‘庚寅 이래의 왜구’는 1380년대에 감소하는 경향이었지만, 1392년의 조선 건국 후에도 왜구의 활동은 활발하였고, 조선에 있어서 왜구문제는 내정·외교상의 중요문제였다. 조선에서는 수군의 강화, 연해 축성과 방위의 강화, 봉화의 정비 등을 꾀하여 왜구를 무력으로 토벌·격퇴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왜구에 대한 무단정책의 선례는 1389년 고려에 의한 對馬遠征⁶⁴⁾이지만 일본측에는 사료가 남아있지 않다.

1397년에는 병선을 건조하여 연해 방비를 강화했기 때문에 적이 접근할 수가 없었고, 주민은 토착하게 되었다고 한다.⁶⁵⁾ 1408년에는 각도의 병선을 185척 증가하여 모두 613척이 되었고, 수군의 병력 수를 55,000명으로 늘렸다.

또 왜구 수령에게 귀순을 권유하고 귀순한 자에게는 토지·家財를 급여하며, 아내를 얻어주는 회유정책을 시행하였다.⁶⁶⁾ 그 결과 조선에 투항하여 귀화한 일본인이 잇달았

63) 佐伯弘次, 2007 <日本から見た東アジア世界の変容> 《東アジアと日本：交流と変容統括ワークショップ報告書》(九州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

64) 《高麗史》 卷116, 列伝 29朴葳; 《同》 卷137 列伝50 辛禡附昌 元年 2月; 《高麗史節要》 卷34 恭讓王 元年 2月

65) 田中, 1961

다. 이러한 일본인은 降倭·投化倭·向化倭이라고 불렸다.

투화왜는 고려시대 말기부터 보이는데, 조선시대에 처음 보이는 것은 1396년이다. 같은 해 12월 왜선 60척이 寧海 丑山島에 도착했고 萬戶 羅可溫이 투항을 요청하였다.⁶⁷⁾ 조선측은 이를 허가하여 羅可溫 등의 투항이 결정되었다. 羅可溫(中尾)은 相田於中이나 林溫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對馬의 船越·土寄에 거처를 둔 왜구의 頭領 早田左衛門太郎이다.⁶⁸⁾ 羅可溫은 한 번 도망쳐서 귀국했으나, 도망치지 않은 아들 都時老·昆時羅·望沙門은 조선에서 1397년 2월 司正 등의 관직에 임명하고 의관을 주었다. 동년 4월 羅可溫은 다시 병선 24척과 80명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와서 투항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降倭 羅可溫은 宣略將軍에 임명되었다. 다음해 1398년 2월, 羅可溫은 林溫으로 개명하고 宣略將軍行郎將에 데리고 온 望沙門 등도 조선식 이름으로 개명하고 관직을 받았다. 이 早田左衛門太郎의 投降, 改名·受職은 처음부터 투항과 武官職의 수여가 세트가 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의 수직정책이 처음부터 왜구대책의 근간이기도 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 전후에 萬戶 疚六도 조선에 투항하고 있듯이 對馬 왜구세력의 중심인 물인 早田左衛門太郎이 투항한 영향은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투항왜 가운데 의사·대장장이 등 기능자에 대해서 조선은 관직을 주고 우대하였다. 이들 관직은 실제의 실무가 없는 影職이었다. 관직을 받으면 수직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수직인제도의 원류가 되었다.

이 밖에 조선은 평화적인 통교자에 대해서는 남부 연안의 어느 항만에서든지 자유로운 무역을 허가하거나 근해에서의 어업을 허가하였다.⁶⁹⁾ 우대를 받은 왜구와 연해의 영주들은 使者로서 조선에 도항하는 使送倭人, 무역을 목적으로 도항하는 興利倭人 등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렇게 조선의 무단과 회유정책은 왜구대책이라는 관점에서는 성공하였고, 왜구들은 급속하게 평화적인 통교자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대정책은 조선 측의 경제적인 부담을 증대시켜 정책의 전환을 다가오게 하였다.

66) 田中, 1959 ; 田中, 1961 ; 中村榮孝, 1966 《日本と朝鮮》(至文堂)

67) 羅可溫의 投降과 受職에 대해서는 《太祖實錄》 5年 12月 癸巳, 6年 正月 丙辰, 2月 癸巳, 4月 癸未, 4月 己酉, 7年 2月 甲午條 등 참조.

68) 田村, 1967 本論 第1章

69) 田中, 1959 ; 中村, 1966

2. 중세 日朝관계의 특질과 사절의 왕래

田中健夫氏は 중세의 日朝관계를 4단계로 분류하였다.⁷⁰⁾ 제1기는 1392년~1419년이며, 왜구중식기를 거쳐 조선과의 통교관계가 단초를 열고, 일본 각지의 통교자가 통제 없이 조선으로 건너갔던 시기이다. 제2기는 1419년~1450년으로, 세종은 평화외교에 의한 교린정책을 견지하고 癸亥約條(嘉吉條約)를 비롯한 다수의 통교 통제규정이 정해지고, 對馬와 조선과의 관계가 궤도에 올랐던 시기로 본다. 제3기는 1450년~1510년으로 통교의 모든 제도는 전 시대의 뒤를 이어 완비되어 갔지만 무역이 막다른 상태에 도달했던 시기로 본다. 제4기는 1510년~1592년으로 삼포의 난으로 조선과 對馬의 관계는 파국을 맞이했으며, 그 후 對馬의 노력에 의해 서서히 회복되어 갔지만, 文祿의 役(임진왜란)으로 모든 관계가 단절된 시기이다.

중세 日朝관계의 특색은 다원적인 관계에 있다. 그것은 일본국왕 대 조선국왕의 국가적인 관계와 함께 조선국왕 대 일본인 통교자의 放射的인 관계라는 이중성이다. 전자는 명의 국제질서에 따른 관계인데, 日朝관계의 주류는 후자였다. 이것이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의 日朝관계의 이질성이며, 커다란 특징이기도 하다. 또 일본국왕 대 조선인 통교자라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日朝관계는 일방향적인 관계이기도 하였다. 이것도 日朝관계의 특질 중 하나인데, 그 배경에는 왜구문제가 존재하였다. 즉 왜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조선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고, 그러한 왜구대책과 수정정책이 日朝 통교제도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 이어서 조선도 일본에 외교사절을 여러 번 보냈다. 이에 대하여 일본도 일본국왕사를 여러 차례 조선에 보냈다.⁷¹⁾ 1397년 11월에 大內義弘이 조선에 使者를 보내 足利義滿이 島倭의 금압을 보고한 것에 대하여 조선은 回禮使 朴惇之를 일본으로 파견하였다. 다음해 박돈지는 京都에 가서 足利義滿에게 ‘三島倭寇’의 금압을 요청했다. 1399년 足利義滿은 박돈지가 귀국할 때 使者를 파견하여 피로인 백여명을 송환하고 대장경판 등을 요구하였다. 이후 일본국왕 足利氏와 조선국왕 간에 외교관계가 성립하고 사절의 왕래가 계속된다. 당초 足利義滿은 ‘日本國大相國’ 등의 명칭으로 통교했지만 1404년의 使者는 義滿을 ‘日本國王源道義’라고 하였다. 義滿이 일본국왕에 책봉된 것은

70) 田中, 1975 166~167

71) 이하 일본과 조선의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中村, 1966 참조.

1403년 영락제에 의한 책봉인데, 명의 책봉이 조선과의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국의 국가적인 관계는 15세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足利義滿은 1399년부터 사망하는 1408년까지 총 12회의 조선 遣使를 확인할 수 있다(표2). 그 기사 중에는 조선 피로인을 송환하거나 왜구 금압을 보고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조선측의 왜구 금압·피로인 송환 의뢰에 응한 것이지만, 그 실상은 對明관계에 있어서 왜구대책과 매우 비슷하다. 室町幕府가 직접 군대를 파견하여 왜구 토벌과 피로인을 보호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義滿은 앞에서 말한 1381년 8월 6일의 왜구 금압 명령과 마찬가지로 室町幕府-守護 체제 하에서 지방 지배 시스템인 守護제도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실행에 옮겼던 것으로 생각된다.

〈表 2〉 足利義滿이 朝鮮에 보낸 遣使(《朝鮮王朝實錄》에서)

年 月	名義·使節名	記 事
1399. 5	日本國大將軍	被虜男女 100여 명을 發還
1402. 6	日本使僧(日本國大相國)	
1403. 1	日本國使12人	
1403.10	日本國使20余人	被虜人 130명을 거느리고 옴
1404. 7	日本 (日本國王源道義)	
1405. 6	日本國王源道義	擒賊을 보고함
1405.12	日本國王使僧周棠	
1406. 2	日本國王源道義	大藏經을 요청함
1406. 6	日本國王	
1407. 2	日本國王	姦寇 禁絶을 보고함
1408. 9	日本國王使	
1408.10	日本國王源道義使人	草竊 禁制를 보고함

통신사 박서생이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인 1429년 12월, 조선국왕 세종은 ‘日本國, 其王薨, 不遣使訃告, 及即位, 又不遣使通好, 我國亦不必遣通信使也, 然在我交隣之禮, 不可不修, 故遣使致賻, 且賀即位, 彼宜報謝, 又不遣使, 反因求請, 乃遣宗金, 失禮之中, 又失禮焉’이라고 측근에게 말했다.⁷²⁾ “日本國은 왕이 죽어도 그 죽음을 조선에 알리지 않고, 왕이 즉위하여도 사신을 보내 우호를 통하지 않는다. 조선은 반드시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조선에는 交隣의 예가 있어 우호를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때문에

72) 《世宗實錄》 11年 12月 辛巳條.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供物을 주고 국왕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일본국은 은혜를 갚아야 하지만 역시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오히려 求請 때문에 宗金을 보냈다. 매우 심한 결례이다”라고 하였다.

세종의 이 말 속에는 일본과 조선의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인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 있다. 조선측이 ‘交隣의 예’를 중시함에 비하여 일본측은 ‘求請’ 즉 문물의 입수에 비중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교자세는 일관되었으며, 對朝鮮 외교만이 아니라 對明 외교의 기본도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조선국왕측의 사절이 通信·報聘·回禮 등 국가적인 예에 기초한 사절 파견이었음에 비하여 일본국왕측의 사절은 구청이 주었으며, 그에 관한 한에서는 등질의 외교관계가 아니었다.

3. 동아시아 속의 應永의 外寇(己亥東征)

전기왜구의 종언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며, 중세 日朝관계의 제1기와 제2기를 구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1419년의 應永의 外寇(己亥東征)이다.⁷³⁾

이 사건은 1419년 5월 왜구가 한반도 서해안을 약탈하고 명으로 향했던 것에서 비롯되며, 6월 20일 병선 227척·1만 7천여 명의 조선군이 왜구의 근거지인 對馬의 淺茅灣 일대를 공격한 사건이다. 조선군은 7월 3일에 거제도도 귀착하여 전투는 끝났다. 단기간의 전투였지만 對馬宗氏와 조선의 관계는 일시 단절되었고, 전후의 관계 복구교섭 중에 對馬의 경상도 귀속이 문제가 되었다.

이 外寇는 왜구의 침체를 가져왔는데 일본 국내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처음에 將軍 足利義持 등의 室町幕府 관계자는 조선이 명과 연합하여 일본을 공격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의 일기를 보면, 京都에서는 ‘大唐國·南蠻·高麗’ 등과 ‘蒙古’가 쳐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졌다.⁷⁴⁾ 몽고침략의 기억이 되살아나 조정과 막부는 寺社에서 異國降伏의 기도를 거행하였다. 일본국왕 足利義持의 오해는 이듬해의 회례사 宋希璟의 來日까지 계속되었다.

足利義持가 이 사건을 오해한 이유가 존재하였다. 그것은 日明關係의 악화이다. 1410년 入明한 제6차 遣明船을 마지막으로 足利義持는 명에 대한 조공을 단절하였다. 이에

73) 應永의 外寇에 관해서는 三浦周行, 1922 《日本史の研究 一》(岩波書店); 中村榮孝, 1965 등을 참조.

74) 《看聞日記》 應永 26年 5月 23日, 6月 25日, 7月 24日條; 《滿濟准后日記》 同年 7月 23日條 등.

대하여 영락제는 조공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조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명의 使者 呂淵은 1418년에 來日했는데,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귀국했으며, 다음해 1419년에 영락제의 국서를 가지고 다시 來日하여 7월에 兵庫에 도착하였다. 이것이 마침 応永의 外寇 직후였다. 義持가 명군이 공격해 온 것으로 이해했던 것은 이러한 국제적인 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南蠻船의 일본 來航도 계속되었다. 마침 1419년에는 유구가 일본에 使船을 보냈는데,⁷⁵⁾ 동년 8월 이전에 南蠻船이 薩摩에 來航하고 있었다.⁷⁶⁾ 이러한 南蠻船의 빈번한 來航이 外寇의 주체에 관한 풍문에 南蠻이 들어 있는 커다란 이유일 것이다.

이와 같은 명과 일본의 긴장된 국제관계는 조선측도 파악하고 있었다. 1417년에 入明한 조선사절은 영락제가 “일본국왕의 무례한 일을 내가 아는가”라고 묻자, “日本國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만, 賊島의 일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영락제가 呂淵이 지참할 칙서를 조선사절에게 보여주었다. 또 영락제는 琉球사절이 귀국할 때 ‘너희 나라가 일본국과 서로 친하니, 후일에 일본을 정벌하게 되면 너희 나라가 반드시 먼저 길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였고, 琉球사절은 황송해하며 돌아갔다. 이러한 견문을 조선사절은 귀국 후 국왕에게 보고하고 있다.⁷⁷⁾ 이처럼 명과 일본의 대립은 조선·琉球에게도 무관하지 않으며 동아시아 諸國을 휘말리게 한 것이었다. 또 呂淵의 來日은 琉球를 경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동향과 応永의 外寇는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당시 일본의 위정자들은 이것을 연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4. 日朝 통교체제의 정비와 對馬·三浦

조선의 왜구 회유정책은 왜구의 向化倭와 통교자로의 변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우대정책의 결과 조선측의 부담이 증대하였고, 점차 일본인의 통교를 제한하게 되었다. 통교 통제책의 실시이다.⁷⁸⁾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위가 있는데, 일본인 통교자에게 圖書(통교자의 이름을 새긴

75) 佐伯弘次, 1994 <室町前期の日琉關係と外交文書> 《九州史學》 111

76) 高柳光壽, 1932 <応永年間に於ける南蛮船來航の文書について> 《史學雜誌》 43-8 ; 小葉田淳, 1968 《中世南島通交貿易史の研究》 (刀江書院)

77) 《太宗實錄》 17年 12月 辛丑條

78) 通交統制策에 대해서는 中村, 1966을 참조.

도장)를 지급하고, 서계(외교문서)에 찍어서 眞使의 증거로 삼는 授圖書制가 시행되었다. 1418년 小早川淨存(則平)의 사례가 최초이다. 이후 많은 통교자에게 도서를 지급했으며, 통교 통제의 기축이 되었다.

1419년경 九州 방면의 통교자는 九州探題 澁川氏, 對馬 통교자는 島主 宗氏의 서계를 지참한 자만을 접대하는 것이 정해졌다. 이것을 서계에 의한 통제라고 한다. 그 후 九州探題 澁川氏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서계 발행권은 지역의 유력자에게 분산되었다.

그 후 일본국왕사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본인 통교자에게 對馬宗氏가 발행하는 文引이라는 渡航證明書의 휴대가 의무화되었다. 1426년에 시작되었고, 1435년 이후 조 직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하여 日朝관계에 있어서 對馬 宗氏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宗氏는 이것을 守護所 佐賀에서 조선으로 가는 도항자에게 발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신의 財源으로 삼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인의 受職은 왜구대책의 일환으로 向化倭에게 급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1440년대가 되면 양상이 변해 간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게도 급여하게 되었다.⁷⁹⁾ 국내 거주 受職人은 연 1회, 지급받은 관복을 입고 조선으로 가서 그 기회에 무역도 하였다. 결국 관직의 획득이 통교권의 획득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受圖書人 제도가 보급되자 통교자마다 연간 통교회수(사선파견 회수)를 정하게 된다. 이것을 歲遣船定約이라고 부르고 있다. 1440년 小早川持平의 예가 처음으로 보인다. 1443년의 癸亥約條에서 對馬宗氏는 연간 50船의 세건선이 인정되었다. 15세기 후반에는 이 세건선정약이 일반적이 된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가는 배에는 興利船과 使送船(使船)이 있었다. 수도서인과 세 건선정약에 관계된 것은 사송선이다. 흥리선은 당초 조선 남해안의 포소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도항하여 교역할 수 있었으나, 태종 초기에는 富山浦(釜山浦)와 薺浦 두 항구로 한정되었다. 처음에는 흥리선에 대한 포소였으나 應永의 外寇 전후부터 이 규정을 사송선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1426년 末田左衛門太郎의 요구로 塩浦가 추가되었고, 부산포·제포·염포의 3항이 일본을 위한 무역항이 되었다. 삼포의 성립이다.⁸⁰⁾ 삼포에는 점차 일본인이 거주하게 된다. 이것을 恒居倭라고 부르는데, 많을 때는 3,000명에 가까운 항거 왜가 삼포에 존재하였다. 그 대다수는 對馬島人이며 그들에 대해서는 宗氏가 收稅하였

79) 松尾弘毅, 2003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後期受職人の性格> 《日本歴史》 663

80) 三浦의 성립과 恒居倭에 대해서는 中村, 1965 一六章 ; 村井章介, 1993 《中世倭人伝》(岩波書店) ; 關, 2002 第3章 등을 참조.

다. 이 삼포 항거왜의 動靜이 뒷날 삼포왜란으로 이어진다.

1443년 조선과 對馬宗氏 간에 癸亥約條가 체결되었다. 여기서는 島主 세건선을 50船으로 하는 것과 島主의 歲賜米豆를 200石으로 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세건선 50선은 다른 大名·領主·商人들의 수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으며, 더욱이 세건선 외에 特送船이라는 임시 사선이 인정되기도 했지만, 이 수로는 家臣團까지 돌볼 수가 없어서 宗氏는 15세기 후반에 僞使의 창출을 조직적으로 감행하게 된다.⁸¹⁾

이상과 같이 수도서인과 수직인에 의한 조선통교가 15세기 전반 이후 日朝관계의 중심이 되지만,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洪利왜인에 의한 교역이다. 洪利왜인은 洪利왜선이라 부르는 선박으로 조선에 도항했던 사람들이다. 洪利왜선의 교역은 지참한 어염과 조선의 미곡을 교환하는 것이며, 초기를 제외하고 對馬가 독점했던 것이 밝혀졌다.⁸²⁾ 확실히 洪利왜인은 對馬 연해의 小領主나 海民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對馬의 중세문서에 많이 보이는 ‘塩判’은 ‘當局(對馬)·고려(조선)의 모든 公事’⁸³⁾로 부르고 있으며, 對馬에서 생산된 소금과 조선과의 교역에 관계된 세금일 것이다. 중세의 對馬에는 많은 塩屋·塩竈가 있으며, 소금 생산에 관한 중세사료와 ‘塩判’에 관한 문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⁸⁴⁾ 개별적으로는 작은 규모의 소금 생산과 교역이었지만, 총체적으로는 상당한 정도의 양에 이르렀던 것은 아닐까. 또한 그 중에는 ‘육지(九州)·고려(조선)의 상업(商) 귀국선’이라든가 ‘對馬國 与 良郡 内 土寄三ヶ村에서 고려·육지(九州)로 일하러 가는 배’ 등의 선박이 종종 보인다.⁸⁵⁾ 이것은 對馬의 海村을 거점으로 조선과 九州를 왕래하는 교역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對馬-九州라고 하는 교역루트를 왕래하듯이 광역적 활동을 행한 교역선도 對馬에는 존재하였다.

이러한 교역선은 수직인이나 수도서인과 같은 확고한 조선통교권을 가진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중세에는 이러한 배가 많이 존재하여 日朝교역의 저변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81) 長2002a ; 長節子, 2002b 《中世國境海域の倭と朝鮮》(吉川弘文館); 荒木和憲, 2007 《中世對馬宗氏領國と朝鮮》(山川出版社)

82) 長2002b, 第三-一.

83) 大山小田文書26号宗成職書下(佐伯弘次·有川宜博, 2002 <大山小田文書> 《九州史學》 132)

84) 佐伯弘次, <中世對馬海民の動向> 秋道智彌 編, 1998 《海民の世界》(同文館)

85) 佐伯弘次, 2008 《對馬と海峽の中世史》(山川出版社)

5. 교역품과 環중국해 세계

일본에서 조선으로 수출하는 물품에는 국산품 외에 많은 동남아시아산 물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되고 있다.⁸⁶⁾ 즉 蘇木(丹木)·深黃·朱紅·硫黃·白礬·桂心·川芎·甘草·犀角·樟腦·朱砂·沈香·藿香·白檀·胡椒·肉豆蔻·水牛角·象牙 등의 染料·藥材·香料이다. “동남아시아 방면, 당시 南蠻으로 불리던 지역의 물산이 이처럼 풍부하게 조선으로 들어간 것은 博다가 무역의 일대 중심시장을 이루고, 琉球를 경유하거나 또는 직접 이곳으로 모였기 때문”이라고 한다.⁸⁷⁾

中世 日朝무역의 실태에 대하여 검토했던 田村洋幸氏는 九州探題 휘하인 平滿景의 조선무역에 대하여 “무역 내용은 香·藤·胡椒·檳榔 등 대부분이 南海貿易品이며, 실로 중계항으로서의 博多를 대표하는데 상응하는 것이었다”고 하였다.⁸⁸⁾ 게다가 日朝 무역품 중의 南海 교역품은 동남아시아부터 서아시아 지역의 물품으로, ‘일본상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들 南海諸國의 상인 내지 그 대행자와 접촉하고 있으며, 일본 각 지역의 물자와 이들 각 물자를 교역하고 있었다’고 한다.⁸⁹⁾

또한 15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博多 무역상인 宗金의 조선 수출품을 검토하면 일본산 공예품, 일본산 광산물·동남아시아산 약재·향료·염료, 중국산 약재로 분류되며, 특히 유황·동과 같은 일본산 광산물이 중심이었다.⁹⁰⁾ 동남아시아산 물자로는 犀角·鬱金·沈香·蘇木·甘草 등이 확인된다. 이처럼 조선으로의 현상품과 교역품 중에 동남아시아산 물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博多상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 일본인 통교자에게 공통된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러한 일본을 중계로 하는 동남아시아산 물자의 조선 수출의 배경에는 14세기말 이후 琉球船·南蠻船의 來航이 있다. 이러한 물자의 존재가 중세 日朝무역의 특색이라는 것은 日朝관계가 環중국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을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다.

86) 中村, 1966, 158.

87) 中村, 1966, 158.

88) 田村, 1967, 368.

89) 同前, 445~447.

90) 佐伯弘次, 1999 <室町期の博多商人宗金と東アジア> 《史淵》 136

맺음말

마지막으로 중세 日朝관계와 동아시아세계 및 환지나해 지역과의 관계를 지적하고 매듭짓고자 한다. 14세기말에 시작되어 15세기 전반에 확립된 日朝관계는 일본국왕 대 조선국왕이라는 국가레벨의 관계와, 조선국왕 대 일본인통교자라는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자의 관계는 足利義滿 시기에 활발해졌는데, 원리적으로 보면 명의 국제질서에 포섭되는 성격의 것이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세계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명의 국제질서를 강하게 의식했던 조선에 비하여 일본국왕측은 어느 정도 이것을 의식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물품의 구청에 집착하였다. 이러한 비쌍방향성이 국가레벨의 日朝관계의 특색이다.

이에 비하여 후자의 관계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遣使(受職人の 경우는 來朝)·獻上·回賜라는 구조는 조선국왕과 통교자 사이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왜구문제(왜구회유정책)를 배경으로 한 특징적인 외교관계였다. 이러한 외교관계의 배후에는 일본국왕의 ‘구청’ 행위와 공통되는 물품의 획득과 경제적 이윤의 추구가 있었다.

이러한 이중의 통교관계 아래, 홍리왜인으로서 대마도인의 활동이 존재하였다. 이것은 개별 상업활동으로서는 작고, 魚鹽과 곡물의 교환이라는 식량의 입수가 주된 목적이었으나, 그 중에는 조선-대마-九州라는 광범위한 루트 상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도 존재하였다. 이들 일본인 통교자나 홍리왜인의 활동은 명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통교체제의 규제를 받은 것이 아니며, 동아시아 세계라는 시각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독자적인 관계이다.

한편, 일본에서 조선으로 가져갔던 물품 중에는 동남아시아산 물자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동아시아 교역권과 동남아시아 교역권이 깊이 결합한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즉 물품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 세계만의 시각으로는 불충분하며, 환중국해 지역, 동·동남아시아 교역권 등 보다 광역의 지역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田中健夫氏가 설정했던 중세 日朝관계의 제4기는 1510년의 삼포왜란을 계기로 하지만, 이 시기는 ‘무역권의 對馬 집중’의 시대로 여겨지고 있다.⁹¹⁾ 對馬宗氏에 의한 僞使가 대량으로 창출되기 때문이다. 근년에 발견된 宗氏 舊藏의 圖書와 木造印으로 그 실태가

91) 田中, 1959 第七.

보다 구체적으로 판명되었다.⁹²⁾ 16세기의 삼포왜란 이후에는 僞使 통교체제라고도 할 만한 교역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다.

근년의 연구로 15세기에, 특히 중기 이후 日朝 간에 많은 僞使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다.⁹³⁾ 15세기 중반부터 僞使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僞使 창출의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료가 적고, 견해가 나뉘어진 상황이다. 이 위사의 실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로 그 시기의 日朝관계의 본연의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된다.

《해동제국기》는 15세기 중기부터 제3·4반기에 걸친 日朝관계의 기초사료 중 하나이며, 이 시기의 일조관계의 실태분석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이 사료에는 200여명의 일본인 통교자가 수록되어 있다. 그 지역적 분포는 對馬·壹岐·九州를 비롯하여 서일본 일대로 확대되며, 가장 동쪽의 통교자는 信濃 善光寺 승려이다. 따라서 이 사료는 당시의 일본과 조선이 서일본 일대에 널리 분포하는 통교자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증거였으나, 일본인 통교자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바 많은 僞使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⁹⁴⁾ 이들 僞使 창출의 주체는 對馬宗氏나 博多상인 등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생각하면 《해동제국기》의 일본인 통교자 대부분은 對馬·壹岐·松浦·博多 등 북부九州 沿岸·島嶼지역으로 한정된다. 당시의 일조관계에서 일본측의 주된 근거지는 상당히 한정된 지역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92) 田代和生·米谷均, 1995 <宗家旧藏 <凶書>と木印> 《朝鮮學報》 156 ; 米谷均, 1997 <一六世紀日朝關係における僞使派遣の構造と實態> 《歴史學研究》 697 ; 荒木和憲, 2007 《中世對馬宗氏領國と朝鮮》 第2部 第3章 (山川出版社)

93) 長, 2002a ; 橋本, 2005 ; 伊藤幸司, <日朝關係における僞使の時代> 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會 編, 2005 《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 第2分科篇 (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會)

94) 長, 2002a ; 佐伯弘次·水野哲雄·三村講介·荒木和憲·岡松仁·岩成俊策·大塚俊司·松尾弘毅·八木直樹, 2006 <《海東諸國紀》日本人通交者の個別的檢討> 《東アジアと日本：交流と変容》 3 (九州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